

연령별 한국 전통후식류의 기호도 조사

†박성진 · 한경순* · 김영언** · 유선미***

한림성심대학교 관광외식조리과/한림성심대학교 생물소재연구소, *오산대학교 관광외식사업과,
한국식품연구원 대사기능연구본부, *농촌진흥청 농식품자원부

A Study of the Preference of Korean Traditional Desserts by Aged Group

†Sung-Jin Park, Kyung-Soon Han*, Young-Eon Kim** and Seon-Mi Yoo***

Dept. of Tourism Food Service Cuisine, Hallym Polytechnic University, Chuncheon 200-711, Korea /

Research Institute of Biomaterial, Hallym Polytechnic University, Chuncheon 200-711, Korea

*Dept. of Tourism & Food Service Business, Osan College, Gyeonggi 447-749, Korea

**Division of Metabolism and Functionality Research,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Gyeonggi 463-746, Korea

***Dept. of Agro-Food Resource,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Gyeonggi 441-857, Korea

Abstract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and classify the preference on Korean traditional desserts by age groups. More women than men were observed to have a healthy diet. In addition, with regards to age, children and young people were found to have a healthier diet than the median age. Women showed a preference for dessert more so than men. Both men and women showed to eat dessert when reminded, and the young, as well as middle-aged were found to eat dessert often. Korea sign a survey on the traditional dessert, like rice cake, were the preference for women, whereas men were fixated in soft drinks, fruit punch and *Schisandra chinensis* fruit punch with Rhododendron. Young people liked rice cakes, while the median age liked chajongryu hangwaryu. In soft drinks, fruit punch and watermelon Sikhye was preferred by two of the young, while the middle-aged preferred baesuk and *Schisandra chinensis* fruit punch.

Key words: desserts, aged groups, food preference, traditional dessert

서 론

사회변화와 경제발전에 의해 식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영양 상태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이러한 식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식자재가 풍요로워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well-being을 위한 식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Hong & Lee 2006). 우리나라는 B.C. 5~6세기경 처음으로 벼농사를 시작하였으며, 농경을 가장 중요한 생업으로 하였으므로 조리와 가공법에서도 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곡물음식이 가장 많이 개발되고, 또 널리 보급되어 전통음식으로 계승되어 왔다(Ro HK 1999).

곡물음식을 바탕으로 한 떡과 한과 및 음청류(전통음료)는

우리의 식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우리 음식의 전통성을 이어주고 있다(김향숙 2002). 한민족의 전통음식은 그 민족 고유의 소중한 유산으로, 그 민족이 정착한 자연 환경 조건에 순응하고, 역대의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존과 변형의 조화를 이루면서 형성하였다(Kang & Chyun 1998).

우리의 식생활은 과거 가정식이 주가 되었으나,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과 취업의 증가, 외식 및 관련 산업의 발전, 사회의 레저 지향화 등으로 그 양상이 변모되고 있다(Ro HK 1999). 이것은 근대에 들어서 식생활의 서구화와 더불어 외국 식품과 조리법의 유입, 식품 공업의 발달에 의한 여러 종류의 과자류와 음료의 등장, 주거환경의 변화로 인한 핵가족화 대두, 편의성이나 기호성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의 변화와 가정

† Corresponding author: Sung-Jin Park, Dept. of Tourism Food Service Cuisine, Hallym Polytechnic University, Chuncheon 200-711, Korea. Tel: +82-33-240-9234, Fax: +82-33-240-9119, E-mail: sjpark@hsc.ac.kr

의례의 간소화 등에 의한 식생활 환경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대의 가정에서 떡이나 한과의 제조나 이용이 매우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Jung HS 2002).

2006년에 들어 음료와 함께 후식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디저트 카페가 생기면서 레스토랑 비즈니스에서 후식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길보민, 2008). 이와 같은 업계의 변화로 한국 전통후식을 이용한 카페보다 서양의 후식을 이용한 카페가 주를 이루며, 서양 후식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 전통 후식은 그 종류가 많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후식은 다양하지 않으며 명절에만 먹는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다(Park SA 1997).

한국 전통후식의 제공현황을 알아보면, 서울시에서는 우리 음식의 세계화와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우리의 음식 문화를 전승·보존하고 있는 128개 업소를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지정하였다. 2008년 서울시청이 출간한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128곳에 명시되어 있는 일반 음식점과 한정식 식당을 중심으로 후식의 제공 여부와 제공하는 후식의 종류를 조사하였더니,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후식을 전통차, 전통음료와 과일로 국한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일반 음식점에서는 매실차, 식혜와 수정과를 후식으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객 단가가 높은 한정식 식당의 경우 코스에 따라 다양한 후식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세트메뉴에 후식이 포함되어 있어 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후식 메뉴가 존재하는 곳은 총 8개 업소로 떡, 약과, 전통차, 사벳과 과일을 판매하고 있었다(Yea JS 2010).

Lee 등(2007)의 연구에서는 외국인들은 한국 음식점 메뉴에 후식이 없거나 종류가 과일과 아이스크림으로 국한되어 몇 종류가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이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유는 한국 음식점들이 후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후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반면, 미국인들의 식습관에서는 식사 마지막에 후식을 먹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인들에게 후식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후식 목록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수정과와 더불어 식혜, 오미자, 매실차, 유자차 등 한국 전통음료를 후식으로 적극 수용한다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었고 음식점에서 후식 준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통한과류나 음청류를 포함한 다양한 후식을 취급하는 후식 전문점이 생겨서 납품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고 서술하였다.

현재 한국 전통후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인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한국 전통음식이 해외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한식에서 후식의 위치를 밝히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Yea JS 2010).

음식 선호도에 따른 식품선택은 심리적인 적응 여부, 문화,

경제적 배경, 개개인의 식품에 대한 경험 등 여러 선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Lee KY 1997). 또한, 이러한 식생활 환경의 급변 속에서 우리나라 전통후식류의 모습을 재조명해보고, 외래의 음식문화에 일방적으로 이끌려 가고 있는 지금 식생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식품 선호도 관련 연구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져 왔으나, 특정 음식이나 식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특히 한국 전통후식류에 대한 선호도 관련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Lee & Pang 1996; Cho HS 1998; June 등 1998; Lee JH 1999; Jung & Shin 2002; Kim & Kim 2002; Kim 등 2003; Park KA 2003; Kim & Jeong 2004; Park & Park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층에 따른 식생활과, 한국 전통 후식류의 인지도와 기호도를 조사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적인 식생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 식생활에 알맞은 전통후식류의 대중화 및 발전 방안, 더 나아가 한국 전통 후식류의 세계화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2011년 8월 13일부터 2011년 8월 23일까지 10일간 국내 거주 무작위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항의 신뢰도가 낮은 문항들은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79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통계처리에 부적절한 20부를 제외한 359부를 분석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사항과 건강사항, 식습관, 후식의 기호도, 한국(떡, 한과, 음청류)의 후식에 대한 기호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사항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유무, 가족 형태 등 8가지 항목을 조사하였고, 식습관으로는 식사량, 식품의 배합, 3끼 식사 유무, 채소, 육류, 과일, 콩제품, 유제품, 해조류, 음식의 간, 후식 기호도 조사대상의 종류에 대해 떡류, 한과, 차 종류, 과일, 아이스크림, 과자류, 탄산음료, 커피 및 한국의 후식의 기호도로는 떡류 15가지, 한과 9가지, 차 6종류, 청량음료 8가지로 조사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Version 19.0) Win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일반사항, 건강사항, 식습관 및 각 조사항목에 대하여 기술통계분석으로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항목 간 빈도의 차이 검증은 χ^2 -test를, 독립된

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등의 유의적 차이 비교는 one-way ANOVA를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설문조사는 청년층 225명과 중·장년층 134명으로 전

체 3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층 남자 103명, 여자 122명, 중·장년층 남자 50명, 여자 84명으로 구성되었다. 100만 원 이하의 가족 수입은 청년층이 2.5%, 중·장년층이 2.8%이고, 100~150만 원은 청년층이 5.0%, 중·장년층이 1.7%, 150~200만 원은 청년층이 11.1%, 중·장년층이 3.1%, 200~250만 원은 청년층이 10.3%, 중·장년층이 4.2%, 250~300만 원은 청년층이 9.5%, 중·장년층이 4.7%, 300만 원 이상은 청년층이 24.2%, 중·장년층 20.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Characteristics		Rising generation	Middle aged	Total	N(%)
Gender	Male	103(28.6)	50(14.0)	153(42.6)	
	Female	122(34.1)	84(23.3)	206(57.4)	
	Total	225(62.7)	134(37.3)	359(100.0)	
Money (thousand won)	Less than 1,000	9(2.5)	10(2.8)	19(5.3)	
	1,000~1,500	18(5.0)	6(1.7)	24(6.7)	
	1,500~2,000	40(11.1)	11(3.1)	51(14.2)	
	2,000~2,500	37(10.3)	15(4.2)	52(14.5)	
	2,500~3,000	34(9.5)	17(4.7)	51(14.2)	
	More than 3,000	87(24.2)	75(20.9)	162(45.1)	
	Total	225(62.7)	134(37.3)	359(100.0)	
Money (thousand won)	Less than 100	36(10.0)	16(4.5)	52(14.5)	
	100~200	46(12.8)	37(10.3)	83(23.1)	
	200~300	55(15.3)	23(6.4)	78(21.7)	
	300~400	46(12.8)	12(3.3)	58(16.2)	
	400~500	17(4.7)	19(5.3)	36(10.0)	
	More than 500	25(7.0)	27(7.5)	52(14.5)	
Total	225(62.7)	134(37.3)	359(100.0)		
Education	Uneducation person	0(0.0)	0(0.0)	0(0.0)	
	Primary school graduation	0(0.0)	8(2.2)	8(2.2)	
	Middle school graduation	0(0.0)	12(3.3)	12(3.3)	
	High school graduation	37(10.3)	45(12.5)	82(22.8)	
	University graduation	116(32.3)	141(39.3)	257(71.7)	
	Total	153(42.6)	206(57.4)	359(100.0)	
Job	Yes	130(36.2)	100(27.9)	230(64.1)	
	No	95(26.5)	34(9.5)	129(35.9)	
	Total	225(62.7)	134(37.3)	359(100.0)	
Spouse	Yes	67(18.7)	122(34.0)	189(52.6)	
	No	158(44.0)	12(3.3)	170(47.4)	
	Total	225(62.7)	134(37.3)	359(100.0)	
Family	Alone	83(23.1)	4(1.1)	87(24.2)	
	A partner in life	17(4.7)	32(8.9)	49(13.6)	
	With partner	46(12.8)	74(20.6)	120(33.4)	
	Large family	34(9.5)	20(5.6)	54(15.0)	
	Other	45(12.6)	4(1.1)	49(13.8)	
	Total	225(62.7)	134(37.3)	359(100.0)	

로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은 10만 원 미만은 청년층이 10.0%, 중·장년층이 4.5%, 10~20만 원이 청년층 12.8%, 중·장년층 10.3%, 20~30만 원이 청년층 15.3%, 중·장년층 6.4%, 30~40만 원이 청년층 12.8%, 중·장년층 3.3%, 40~50만 원이 청년층 4.7%, 중·장년층 5.3%, 50만 원 이상이 청년층 7.0%, 중·장년층 7.5%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졸업이 중·장년층 2.2%, 중학교 졸업이 중·장년층 3.3%, 고등학교 졸업이 청년층 10.3%, 중·장년층 12.5%, 대학교 졸업 이상이 청년층 32.3%, 중·장년층 39.3%로 나타났다. 직업은 청년층 36.3%, 중·장년층 27.9%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는 청년층 18.7%, 중·장년층 34.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는 혼자 생활이 청년층 23.1%, 중·장년층 1.1%, 배우자와 생활이 청년층 4.7%, 중·장년층 8.9%, 배우자와 자녀와 생활이 청년층 12.8%, 중·장년층이 20.6%,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과 함께 생활이 청년층 9.5%, 중·장년층 5.6%,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과 기타 형제들과 함께

생활이 청년층 12.6%, 중·장년층이 1.1%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조사

Table 2는 남녀 간의 식습관 점수를 나타내는데, “채소는 좋아하며 자주 먹습니까?”($p<0.05$), “과일은 자주 먹습니까?”($p<0.01$), “해조류(미역, 김 등)를 자주 먹습니까?”($p<0.05$), “음식의 간은 어느 정도로 합니까?”($p<0.01$)의 질문에서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채소는 좋아하며 자주 먹습니까?”에서는 남자(2.33)보다 여자(2.46)가 채소 섭취가 더 많았고, “과일은 자주 먹습니까?”에서도 남자(1.99)보다 여자(2.22)가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였으며, “해조류(미역, 김 등)를 자주 먹습니까?”에서도 남자(1.84)보다 여자(1.98)가 더 많은 해조류를 섭취하고 있었으며, “음식의 간은 어느 정도로 합니까?”는 남자(1.83)가 여자(2.04)보다 더 짜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연령별 식습관 점수는 “식사 시에는 식품의 배합을 생각하여 먹습니까?”($p<0.05$), “1일 3끼의 식사 중 거르

Table 2. Food habit score by gender

	Male	Female		Note
Food intake capacity	1.93±0.045	1.92±0.038	T=0.294	($p=0.769$)
Matchfood	1.57±0.054	1.69±0.047	T=-1.761	($p=0.079$)
Eating regularly	2.10±0.073	2.21±0.062	T=-1.209	($p=0.227$)
Vegetable intake	2.33±0.043	2.46±0.039	T=-2.219	(* $p=0.027$)
Meat intake	2.16±0.064	2.31±0.049	T=-1.858	($p=0.064$)
Fruit intake	1.99±0.052	2.22±0.046	T=-3.312	(** $p=0.001$)
Fish, soybean product intake	1.98±0.042	2.00±0.043	T=-0.238	($p=0.812$)
Milk fermentation product intake	1.92±0.055	2.01±0.048	T=-1.364	($p=0.173$)
Sea food intake	1.84±0.045	1.98±0.036	T=-2.334	(* $p=0.020$)
Salting of food	1.83±0.047	2.04±0.036	T=-3.569	(** $p=0.000$)

1=bad, 2=usual, 3=good, ** $p<0.01$, * $p<0.05$.

Table 3. Food habit score by aged

	Rising generation	Middle aged		Note
Food intake capacity	1.88±0.036	1.99±0.048	T=-1.818	($p=0.070$)
Matchfood	1.57±0.043	1.75±0.061	T=-2.486	(* $p=0.013$)
Eating regularly	1.91±0.059	2.59±0.064	T=-7.450	(** $p=0.000$)
Vegetable intake	2.35±0.037	2.49±0.046	T=-2.448	(* $p=0.015$)
Meat intake	2.18±0.054	2.37±0.054	T=-2.324	(* $p=0.021$)
Fruit intake	2.04±0.046	2.25±0.053	T=-2.982	(** $p=0.003$)
Fish, soybean product intake	1.94±0.039	2.07±0.049	T=-1.986	(* $p=0.048$)
Milk fermentation product intake	1.96±0.044	1.99±0.063	T=-0.435	($p=0.664$)
Sea food intake	1.88±0.037	1.99±0.042	T=-1.804	($p=0.072$)
Salting of food	1.91±0.038	2.02±0.047	T=-1.911	($p=0.057$)

1=bad, 2=usual, 3=good, ** $p<0.01$, * $p<0.05$.

는 일이 있습니까”(p<0.01), “채소는 좋아하며 자주 먹습니까”(p<0.05), “육류요리(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자주 먹습니까”(p<0.05), “과일은 자주 먹습니까”(p<0.01), “생선, 두부 및 콩제품을 자주 먹습니까”(p<0.05) 총 6가지에서 유의성이 나타났다. “식사 시에는 식품의 배합을 생각하여 먹습니까”에서는 청년층(1.57)보다 중·장년층(1.75)이 더 식품의 배합을 생각하며 섭취하였으며, “1일 3끼의 식사 중 거르는 일이 있습니까”에서 청년층(1.91)이 중·장년층(2.59)보다 끼니를 자주 걸렀으며, “채소는 좋아하며 자주 먹습니까”에서는 청년층(2.35)보다 중·장년층(2.49)이 채소 섭취가 더 많았다. “육류요리(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자주 먹습니까”는 청년층(2.18)이 중·장년층(2.37)보다 더 많이 섭취하였고, “과일은 자주 먹습니까”에서는 청년층(2.04)보다 중·장년층(2.25)이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였으며, “생선, 두부 및 콩제품을 자주 먹습니까”는 청년층(1.94)보다 중·장년층(2.07)이 생선, 두부 및 콩제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후식 관련 조사

Table 4에서는 후식의 기호 여부를 나타내는데, 성별에 따른 유의성(p<0.05)이 나타났지만, 연령층에 따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남자 20.1%, 여자 36.5%로 여자가 더 후식을 선호하였으며, 청년층 37.6%, 중·장년층 18.9%로 청년층이

더 후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는 후식 섭취 빈도를 나타내는데, 후식 섭취 빈도가 매일 3회 이상이 남자 1.9%, 여자 3.9%, 매일 1~2회가 남자 5.8%, 여자 12.0%, 생각날 때만 섭취가 남자 23.4%, 여자 34.5%, 거의 섭취 안함은 남자 11.1%, 여자 7.0%, 절대 섭취 안함은 남자 0.3%로 남녀 모두 생각날 때만 섭취하는 것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식 섭취 빈도가 매일 3회 이상이 청년층 3.6%, 중·장년층 2.2%, 매일 1~2회가 청년층 9.5%, 중·장년층 8.4%, 생각날 때만 섭취가 청년층 37.9%, 중·장년층 20.1%, 거의 섭취 안함은 청년층 11.7%, 중·장년층 6.4%, 절대 섭취 안함은 중·장년층 0.3%로 청년층, 중·장년층 모두 생각날 때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성(p<0.01)은 나타나지만 연령층에 따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6에서는 후식의 선호식품 선택 유무를 나타내는데, 남자 34.8%, 여자 47.9%로 청년층 54.6%, 중·장년층 28.1%로 후식 식품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에 따른 유의성(p<0.01)이 나타나지만 성별에 따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7은 남녀 간의 식품 기호도를 나타내는데, “떡류”(p<0.01), “과일”(p<0.05), “탄산음료”(p<0.01)에서 유의성이 나타났다. “떡류”는 남자(2.03)보다 여자(2.37)가 더 선호하였으

Table 4. The preference for dessert

	Preference		Total	Note
	Yes	No		
Gender	Male	72(20.1)	81(22.6)	153(42.6) $\chi^2=9.767$ (**p=0.002)
	Female	131(36.5)	75(20.9)	
	Total	203(56.5)	156(43.5)	
Aged	Rising generation	135(37.6)	90(25.1)	225(62.7) $\chi^2=2.927$ (p=0.087)
	Middle aged	68(18.9)	66(18.4)	
	Total	203(56.5)	156(43.5)	

**p<0.01, *p<0.05.

Table 5. Frequency of intake of dessert

		More than	More than	Reminded	Do not	Not the	Total	Note
		3 times a day	1~2 times daily	intake	intake nearly	absolute intake		
Gender	Male	7(1.9)	21(5.8)	84(23.4)	40(11.1)	1(0.3)	153(42.6)	$\chi^2=14.542$ (**p=0.006)
	Female	14(3.9)	43(12.0)	124(34.5)	25(7.0)	0(0.0)	206(57.4)	
	Total	21(5.8)	64(17.8)	208(57.9)	65(18.1)	1(0.3)	359(100.0)	
Aged	Rising generation	13(3.6)	34(9.5)	136(37.9)	42(11.7)	0(0.0)	225(62.7)	$\chi^2=4.937$ (p=0.294)
	Middle aged	8(2.2)	30(8.4)	72(20.1)	23(6.4)	1(0.3)	134(37.3)	
	Total	21(5.8)	64(17.8)	208(57.9)	65(18.1)	1(0.3)	359(100.0)	

**p<0.01, *p<0.05.

Table 6. Food availability of dessert

		Food availability		Total	Note
		Yes	No		
Gender	Male	125(34.8)	28(7.8)	153(42.6)	$\chi^2=0.198$ ($p=0.656$)
	Female	172(47.9)	34(9.5)	206(57.4)	
	Total	297(82.7)	62(17.3)	359(100.0)	
Aged	Rising generation	196(54.6)	29(8.1)	225(62.7)	$\chi^2=8.099$ (** $p=0.004$)
	Middle aged	101(28.1)	33(9.2)	134(37.3)	
	Total	297(82.7)	62(17.3)	359(100.0)	

** $p<0.01$, * $p<0.05$.

Table 7. The preference for dessert by gender

	Male	Female		Note
Rice cakes	2.03±0.081	2.37±0.072	T=-3.156	(** $p=0.002$)
Korean cookies	2.14±0.071	2.10±0.059	T=0.510	($p=0.610$)
Tea	3.30±0.081	3.40±0.067	T=-0.928	($p=0.354$)
Fruits	3.76±0.077	3.98±0.063	T=-2.198	(* $p=0.029$)
Ice cream	2.73±0.100	2.73±0.093	T=-0.019	($p=0.985$)
Snacks	2.18±0.077	2.33±0.082	T=-1.286	($p=0.199$)
Soda	2.40±0.096	1.93±0.073	T=3.949	(** $p=0.000$)
Coffee	3.32±0.095	3.25±0.089	T=0.551	($p=0.582$)

1=not very, 2=not, 3=usually, 4=so, 5=very well, ** $p<0.01$, * $p<0.05$.

며, “과일”도 남자(3.76)보다 여자(3.98)가 더 좋아하였고, “탄산음료”는 남자(2.40)가 여자(1.93)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은 연령별로는 “아이스크림”(p<0.01), “과자류”(p<0.01), “탄산음료”(p<0.01), “커피”(p<0.05)에서 유의성이 나타났다. “아이스크림”은 청년층(3.24)이 중·장년층(1.87)보다 더 선호하였고, “과자류”도 청년층(2.53)이 중·장년층(1.81)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탄산음료” 또한 청년층(2.46)

이 중·장년층(1.58)보다 기호도가 높았고, “커피”는 청년층(3.16)보다 중·장년층(3.49)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는 남녀 간 한국(떡, 한과, 음청류)의 후식에 대한 기호도를 나타내는데, “떡”에서는 구름떡(p<0.05), 송편(p<0.01), 쫄면떡(p<0.01), 약식(p<0.05), 증편(p<0.05), 개피떡(p<0.05), 진달래화전(p<0.01), 찰부꾸미(p<0.01) 8가지가, “한과”에서는 매작과(p<0.05), “청량음료”에서는 수정과(p<0.05), 진달래화

Table 8. The preference for dessert by aged

	Rising generation	Middle aged		Note
Rice cakes	2.28±0.069	2.13±0.087	T=1.363	($p=0.174$)
Korean cookies	2.14±0.058	2.07±0.072	T=0.722	($p=0.471$)
Tea	3.33±0.067	3.40±0.083	T=-0.579	($p=0.563$)
Fruits	3.87±0.062	3.90±0.081	T=-0.313	($p=0.754$)
Ice cream	3.24±0.081	1.87±0.080	T=11.311	(** $p=0.000$)
Snacks	2.53±0.074	1.81±0.075	T=6.487	(** $p=0.000$)
Soda	2.46±0.078	1.58±0.069	T=7.654	(** $p=0.000$)
Coffee	3.16±0.082	3.49±0.105	T=-2.462	(* $p=0.014$)

1=not very, 2=not, 3=usually, 4=so, 5=very well, ** $p<0.01$, * $p<0.05$.

Table 9. The preference for the dessert by gender

Kinds	Desserts	Man	Woman		Note
Rice cake	Backseolgi	3.22±0.086	3.28±0.069	T=-0.605	(p=0.546)
	Bean sirutteok	2.90±0.088	3.02±0.078	T=-1.032	(p=0.303)
	Nutitteok	2.48±0.070	2.50±0.067	T=-0.281	(p=0.779)
	Glutinous ricetteok	2.50±0.074	2.70±0.081	T=-1.773	(p=0.077)
	Gurumtteok	2.84±0.083	3.08±0.073	T=-2.111	(*p=0.035)
	Songpyeon	3.03±0.084	3.32±0.072	T=-2.627	**p=0.009)
	Mugworttteok	2.74±0.082	3.17±0.079	T=-3.724	**p=0.000)
	Beantteok	2.84±0.087	2.88±0.078	T=-0.343	(p=0.732)
	Yaksik	3.05±0.085	3.29±0.079	T=-2.035	(*p=0.043)
	Jeolpyeon	2.88±0.081	3.37±0.076	T=-4.330	**p=0.000)
	Injeolmi	3.28±0.091	3.36±0.075	T=-0.707	(p=0.480)
	Gaepitteok	2.75±0.083	2.99±0.079	T=-2.101	(*p=0.036)
	Azalea hwajeon	2.65±0.077	3.02±0.076	T=-3.320	**p=0.001)
	Glutinous rice pancake	2.56±0.079	3.12±0.077	T=-4.990	**p=0.000)
Gyeongdan	2.90±0.094	3.08±0.077	T=-1.505	(p=0.133)	
Korean cookies	Yakgwa	3.18±0.091	2.99±0.078	T=1.607	(p=0.109)
	Maejakkwa	2.61±0.077	2.84±0.074	T=-2.129	(*p=0.034)
	Gangjeong	2.84±0.086	2.87±0.071	T=-0.234	(p=0.815)
	Sanja	2.52±0.074	2.56±0.066	T=-0.404	(p=0.686)
	Yeotgangjeong	2.59±0.076	2.54±0.069	T=0.540	(p=0.589)
	Dasik	2.67±0.079	2.66±0.075	T=0.059	(p=0.953)
	Jeongkwa	2.55±0.075	2.54±0.073	T=0.050	(p=0.960)
	Omijachapyun	2.61±0.079	2.67±0.072	T=-0.574	(p=0.566)
Yeot	2.49±0.087	2.38±0.076	T=0.919	(p=0.359)	
Tea	Chrysanthemum tea	2.98±0.085	3.17±0.078	T=-1.585	(p=0.114)
	Asian apricot tea	3.61±0.089	3.72±0.074	T=-0.942	(p=0.347)
	Quince tea	3.32±0.093	3.35±0.077	T=-0.285	(p=0.776)
	Gugijacha	2.99±0.085	3.15±0.079	T=-1.644	(p=0.101)
	Gyeolmyeongjacha	3.09±0.090	3.31±0.075	T=-1.837	(p=0.067)
	Green tea	3.56±0.091	3.54±0.076	T=0.100	(p=0.920)
Soda	Sikhye	4.05±0.078	3.85±0.073	T=1.775	(p=0.077)
	Sujeonggwa	3.85±0.084	3.53±0.084	T=2.592	(*p=0.010)
	Baesuk	3.03±0.087	3.10±0.079	T=-0.543	(p=0.587)
	Azalea hwachae	2.77±0.082	3.02±0.077	T=-2.178	(*p=0.030)
	Omija hwachae	2.98±0.087	3.43±0.081	T=-3.755	**p=0.000)
	Watermelon hwachae	3.67±0.084	3.69±0.074	T=-0.143	(p=0.886)
	Wonsobyung	2.86±0.076	2.68±0.074	T=0.001	(p=0.999)
	Barleysudan	2.69±0.081	2.75±0.074	T=-0.597	(p=0.551)

1=not very, 2=not, 3=usually, 4=so, 5=very well, **p<0.01, *p<0.05.

채($p<0.05$), 오미자화채($p<0.01$), 총 12가지에서 유의성이 나타났다. “떡”에서 구름떡은 남자(2.84)보다 여자(3.08)가, 송편도 남자(3.03)보다 여자(3.32)가, 썩넛떡도 남자(2.74)보다 여자(3.17)가, 약식도 남자(3.05)보다 여자(3.29)가, 증편도 남자(2.88)보다 여자(3.37)가, 개피떡도 남자(2.75)보다 여자(2.99)가, 진달래화전도 남자(2.65)보다 여자(3.02)가, 찰부꾸미 또한 남자(2.56)가 여자(3.12)가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떡류”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과”에서 매작과 또한 남자(2.61)보다 여자(2.84)가 더 선호하였다. “청량음료”에서 수정과는 남자(3.85)가 여자(3.53)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진달래화채는 남자(2.77)보다 여자(3.02)가 더 좋아하였으며, 오미자화채 또한 남자(2.98)보다 여자(3.43)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은 연령층간 한국(떡, 한과, 음청류)의 후식에 대한 기호도를 나타내는데, “떡”에서는 백설기($p<0.01$), 인절미($p<0.05$)가, “한과”에서는 다식($p<0.05$), 정과($p<0.05$), 오미자편($p<0.05$)이, “차”에서는 구기자차($p<0.01$), 결명자차($p<0.01$)가, “청량음료”에서는 식혜($p<0.05$), 배숙($p<0.05$), 오미자화채($p<0.01$), 수박화채($p<0.05$)에서 유의성이 나타났다. “떡”에서 백설기는 청년층(3.43)이 중·장년층(2.96)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인절미 또한 청년층(3.44)이 중·장년층(3.13)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과”에서 다식은 청년층(2.56)보다 중·장년층(2.84)이 더 선호하였으며, 정과도 청년층(2.45)보다 중·장년층(2.70)이 더 선호하였다. 오미자편 또한 청년층(2.54)보다 중·장년층(2.82)이 더 선호하여 “한과”는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에서 구기자차는 청년층(2.96)보다 중·장년층(3.34)이 선호하였으며, 결명자차 또한 청년층(3.09)보다 중·장년층(3.42)이 더 선호하여 “차” 또한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량음료”에서 식혜는 청년층(4.03)이 중·장년층(3.78)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배숙은 청년층(2.96)보다 중·장년층(3.25)이 선호하였으며, 오미자화채도 청년층(3.10)보다 중·장년층(3.47)이 선호하였으며, 수박화채는 청년층(3.78)이 중·장년층(3.52)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남녀와 연령층을 10대에서 30대까지를 청년층, 40대부터는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가족수입, 한 달 용돈, 교육 정도, 직업 유무, 배우자 유무, 가족 형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조사는 성별 간에서는 “채소를 좋아하며 자주 먹습니까”, “과일은 자주 먹습니까”, “해조류(미역, 김등)를 자주 먹습니까”, “음식의 간은 어느 정도로 합니까”

의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모든 문항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서는 “식사 시에는 식품의 배합을 생각하여 먹습니까”, “1일 3끼의 식사 중 거르는 일이 있습니까”, “채소는 좋아하며 자주 먹습니까”, “육류요리(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자주 먹습니까”, “과일은 자주 먹습니까”, “생선, 두부 및 콩제품을 자주 먹습니까”의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모든 문항에서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이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식의 기호 여부로는 성별 간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남자(20.1%)보다 여자(36.5%)가 후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식의 섭취 빈도로는 성별 간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남자(23.4%), 여자(34.5%) 모두 후식을 생각할 때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식의 식품 유무 여부에서는 연령별 간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청년층(54.6), 중·장년층(28.1%) 모두 자주 먹는 후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식 식품 기호도 조사는 성별 간에서는 “떡류”, “과일”, “탄산음료”의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떡과 과일은 여자가, 탄산음료는 남자가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간에서는 “아이스크림”, “과자류”, “탄산음료”, “커피”의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아이스크림, 과자류, 탄산음료는 청년층에서, 커피는 중·장년층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떡, 한과, 음청류)의 후식에 대한 기호도 조사는 성별 간에서는 “떡류”에서 구름떡, 송편, 썩넛떡, 약식, 증편, 개피떡, 진달래화전, 찰부꾸미의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떡류”의 유의적 차이를 보인 항목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선호하였다. “한과”에서 매작과의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매작과 또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선호하였다. “청량음료”에서 수정과, 진달래화채, 오미자화채의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수정과는 남자가, 진달래화채와 오미자화채는 여자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간에서는 “떡류”에서 백설기, 인절미의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두 가지 모두 청년층이 중·장년층보다 더 선호하였다. “한과”에서 다식, 정과, 오미자편의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세 가지 모두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이 더 선호하였다. “차”에서 구기자차, 결명자차의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두 가지 모두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이 더 선호하였다. “청량음료”에서 식혜, 배숙, 오미자화채, 수박화채의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식혜와 수박화채는 청년층이, 배숙과 오미자화채는 중·장년층이 선호하였다.

Table 10. The preference for the dessert by aged

Kinds	Desserts	Rising generation	Middle aged and seniors		Note
Rice cake	Baekseolgi	3.43±0.066	2.96±0.087	T=4.386	(** <i>p</i> =0.000)
	Bean sirutteok	3.00±0.073	2.93±0.098	T=0.517	(<i>p</i> =0.606)
	Nutitteok	2.52±0.061	2.44±0.080	T=0.834	(<i>p</i> =0.405)
	Glutinous ricetteok	2.65±0.068	2.57±0.098	T=0.704	(<i>p</i> =0.482)
	Gurumtteok	2.98±0.066	2.97±0.098	T=0.106	(<i>p</i> =0.916)
	Songpyeon	3.17±0.065	3.22±0.100	T=-0.445	(<i>p</i> =0.657)
	Mugworttteok	2.92±0.068	3.10±0.106	T=-1.471	(<i>p</i> =0.142)
	Beantteok	2.80±0.072	2.98±0.098	T=-1.481	(<i>p</i> =0.139)
	Yaksik	3.16±0.074	3.23±0.095	T=-0.554	(<i>p</i> =0.580)
	Jeolpyeon	3.12±0.068	3.23±0.102	T=-0.946	(<i>p</i> =0.345)
	Injeolmi	3.44±0.069	3.13±0.101	T=2.604	(* <i>p</i> =0.010)
	Gaepitteok	2.83±0.072	2.98±0.097	T=-1.223	(<i>p</i> =0.222)
	Azalea hwajeon	2.91±0.068	2.79±0.095	T=1.012	(<i>p</i> =0.312)
	Glutinous rice pancake	2.88±0.070	2.90±0.099	T=-0.168	(<i>p</i> =0.866)
	Gyeongdan	3.06±0.076	2.92±0.095	T=1.139	(<i>p</i> =0.256)
Korean cookies	Yakgwa	3.16±0.077	2.93±0.092	T=1.818	(<i>p</i> =0.070)
	Maejakkwa	2.78±0.069	2.68±0.087	T=0.881	(<i>p</i> =0.379)
	Gangjeong	2.85±0.068	2.87±0.092	T=-0.215	(<i>p</i> =0.830)
	Sanja	2.49±0.059	2.64±0.086	T=-1.506	(<i>p</i> =0.133)
	Yeotgangjeong	2.55±0.063	2.58±0.088	T=-0.293	(<i>p</i> =0.770)
	Dasik	2.56±0.065	2.84±0.094	T=-2.579	(* <i>p</i> =0.010)
	Jeongkwa	2.45±0.061	2.70±0.095	T=-2.297	(* <i>p</i> =0.022)
	Omijachapyun	2.54±0.061	2.82±0.098	T=-2.585	(* <i>p</i> =0.010)
Yeot	2.47±0.070	2.37±0.099	T=0.850	(<i>p</i> =0.396)	
Tea	Chrysanthemum tea	3.01±0.071	3.22±0.097	T=-1.744	(<i>p</i> =0.082)
	Asian apricot tea	3.65±0.073	3.72±0.093	T=-0.533	(<i>p</i> =0.594)
	Quince tea	3.31±0.076	3.39±0.094	T=-0.628	(<i>p</i> =0.530)
	Gugijacha	2.96±0.071	3.34±0.097	T=-3.207	(** <i>p</i> =0.001)
	Gyeolmyeongjacha	3.09±0.074	3.42±0.091	T=-2.737	(** <i>p</i> =0.007)
	Green tea	3.59±0.071	3.49±0.103	T=0.841	(<i>p</i> =0.401)
Soda	Sikhye	4.03±0.063	3.78±0.095	T=2.320	(* <i>p</i> =0.021)
	Sujeonggwa	3.60±0.080	3.78±0.092	T=-1.370	(<i>p</i> =0.172)
	Baesuk	2.96±0.073	3.25±0.097	T=-2.341	(* <i>p</i> =0.020)
	Azalea hwachae	2.84±0.069	3.04±0.097	T=-1.689	(<i>p</i> =0.092)
	Omija hwachae	3.10±0.074	3.47±0.101	T=-2.970	(** <i>p</i> =0.003)
	Watermelon hwachae	3.78±0.070	3.52±0.090	T=2.238	(* <i>p</i> =0.026)
	Wonsobyung	2.64±0.061	2.75±0.099	T=-0.966	(<i>p</i> =0.335)
	Barleysudan	2.65±0.066	2.85±0.096	T=-1.788	(<i>p</i> =0.075)

1=not very, 2=not, 3=usually, 4=so, 5=very well, ***p*<0.01, **p*<0.05.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의 일부이며(과제번호, PJ008234),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Cho HS. 1998. A study on food preference of workers for meal served by industry food service. *Korean J Food & Nutr* 11:11-19
- Choi YS, Yoo YJ, Kim JG, Nam SM, Jung ME, Chung CK. 2001. Food preference and nutrient intakes of college students in Kangwon province. *J Korean Soc Food Sci Nutr* 30:175-182
- Hong HO, Lee JS. 2006. Survey on Korean food preference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Focused the staple food and snack-. *Korean J Nutr* 39:699-706
- June JH, Yoon JY, Kim HS. 1998. A study on the preference of Korean traditional 'Jook'. *Korean J Diet Culture* 13:497-507
- Jung HS, Shin MJ. 2002.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Korean traditional rice cak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 Diet Culture* 17:594-604
- Jung HS. 2002.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Korea traditional Duk and Han-gwa -Based on the responses of university students-. MS. Thesis. Kyunghee Uni. Seoul. Korea
- Kang US, Chyun JH. 1998. A comparison study on the perception and the preference of Korean traditional food in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urban and rural area. *Korean J Diet Culture* 13:97-105
- Kim JS, Jeong SH. 2004. A study on food behaviors and food preferences of the tourism transportation business managers in Daegu areas by age. *Korean J Diet Culture* 14:529-541
- Kim KA, Kim SJ, Jung LH, Jeon ER. 2003. Meal preference on the school food service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Gwangju and Chollanamdo area. *Korean J Soc Food Cookery Sci* 19:144-154
- Kim US, Kim YS. 2002.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preference for rice food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in Seoul area. *Korean J Culinary Research* 8:231-247
- Lee JH. 1999. Survey on food preference in Gyeongnam area. *Korean J Soc Food Sci* 15:338-352
- Lee KJ, Cho MS, Lee JM. 2007. Content analysis of the New York Times on Korean food from 1980 to 2005. *Korean J Diet Culture* 22:289-298
- Lee KY. 1997. A study on nutrients intake and serum lipid middle-aged Korean workers. *J East Asian Soc Dierary Life* 7:429-444
- Lee WM, Pang HA. 1996. A study on the preference and food behavior of the children in primary school foodservice II. *J Korean Dietetic Association* 2:69-80
- Park KA. 2003. Food preferences and dietary habits of university students in Kyungbuk province. *J East Asian Soc Dierary Life* 13:527-541
- Park SA. 1997. An analysis on the degree of utilization of Korea menu items in family restaurants -With special reference to consumer satisfaction-. *Korean J Diet Culture* 12:23-33
- Park SS, Park MR. 2006. A comparison of eating habit, food intake and preference between juvenile delinquents and male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Nutr* 39:392-402
- Ro HK. 1999. Factors in food selection and eating out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Diet Culture* 14:241-249
- Yea JS. 2010. A study on dessert choice and consumer behavior depending on consumer value. MS. Thesis. Ewha Womans Uni. Seoul. Korea
- 길보민. 2008. 심상치 않은 디저트의 행보: 디저트 시장의 대중화와 세분화. *식품외식경제*. 제 572호
- 김향숙. 2002. 떡·한과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리과학적 고찰. *한국조리과학회지* 15:559-574

접 수 : 2012년 8월 1일
 최종수정 : 2012년 8월 16일
 채 택 : 2012년 8월 20일